

가스공사, Mitsubishi와 LNG 생산

인도네시아에 3조1000억원 투입 ... 2014년부터 국내시장에 70만톤 공급

가스공사가 일본 Mitsubishi상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가스공사와 Mitsubishi상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LNG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1월22일 보도했다.

가스공사와 Mitsubishi상사,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는 총 2300억엔(약 3조1000억원)을 투입해 LNG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해 2014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와 Mitsubishi상사의 25대75 합작기업이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이 부담한다.

합작 건설된 LNG 생산기지는 2014년부터 LNG를 200만톤 생산해 13년간 한국에 연평균 70만톤, 일본에 130만톤을 공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1/24>